

위안부 문제

내각총리대신 담화 및 자필 서명 서한

아베 내각총리대신 담화 (이른바 ‘전후 70년 담화’) 2015년 8월 14일

“전쟁터의 그늘에는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.”
“우리는 20세기 전시하에 수많은 여성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이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.
그렇기에 일본은 이런 여성들의 마음에 늘 다가가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.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
침해당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세계를 선도해 가겠습니다.”



미야자와 전 총리
방한 시의 일한정상회담
발언 등(1992)



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
전후 50년을 향한 담화 등
(1994, 1995)



하시모토 전 총리
편지*(1996-98)



오부치 전 총리
편지*(1998-2000)



모리 전 총리
편지*(2000-01)



고이즈미 전 총리
편지*(2001-02)



아베 총리
참의원 본회의 발언(2007)
‘전후 70년’ 담화(2015)

*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
필리핀, 한국, 대만에서 아시아여
성기금 사업이 실시될 때,
당시의 내각총리대신 편지가 전 위
안부 분들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.



“저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수많
은 고통을 겪고 심신 양면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
들께 **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심정**을 말씀드립니다. ... (일본은) 사죄와 반
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과거사를 직시하며 이를 후세에 바르게 전달(해야
한다고 생각합니다.)”

일본국 내각총리대신

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(아시아여성기금) : 48억 엔(일본 정부 출연)+6억 엔(국민 성금)

- ◆ 사과금(償い金): 1인당 200만 엔을 285명의 전 위안부 분들에게 지급(한국: 61명, 필리핀: 211명, 대만: 13명).
- ◆ 의료·복지 지원사업: 1인당 300만 엔(한국, 대만), 1인당 120만 엔(필리핀).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업 실시

2015년 화해·치유재단 : 10억 엔(일본 정부 출연)
(일한 양국 정부는 이 문제가 ‘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’을 확인)

- ◆ 합의 시점의 위안부 생존자 47명 중 35명에게 1인당 1,110만 엔을 지급(한국).
- ◆ 돌아가신 199명 중 64명의 유족에게 200만 엔을 지급(한국).